

2009년 일본의 국제수지 구조의 특징과 의미

2009년 일본의 국제수지(속보치)는 전년에 비해 흑자폭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음. 경상흑자폭의 감소요인으로서에는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수지의 감소를 들 수 있음. 무역·서비스 수지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로 전환되었음.

□ 경상수지 흑자폭, 소득수지 감소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

- 2009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13.3조 엔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의 16.4조 엔에 비해 약 3조 엔 정도 흑자폭이 감소
- 무역·서비스 수지는 2.1조 엔으로 전년의 1.9조 엔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는데, 2009년 2사분기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수입은 원유,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화로 감소한 것에 기인
- 소득수지는 12.3조 엔으로 전년의 15.8조 엔에 비해 약 3.5조 엔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를 주도.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해외증권투자수익의 대폭적 감소가 소득수지 감소의 주요 원인

□ 자본수지,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적자구조 유지

- 자본수지는 12.7조 엔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의 18.4조 엔에 비해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된 자금이 해외증권투자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종래의 자금흐름구조는 불변

- 자본거래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을 주도한 것은 해외증권투자.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투자는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(14.0→16.3조 엔)
- 한편 실물경제의 위축을 반영하여 해외직접투자(유출, 13.2→7.0조 엔)와 외국인 직접투자(유입, 2.5→1.1조 엔)는 대폭적으로 감소.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7년을 피크로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본경제의 투자매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
- 외화준비는 2.5조 엔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2007년을 피크로 둔화 추세

□ 일본의 국제수지구조에서 나타난 일본경제의 취약성

- 첫째, 경상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소득수지 흑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결과 경상수지가 해외투자의 리스크에 취약해 질 가능성 증대
- 글로벌화로 인하여 세계경제위기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확산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의 글로벌 리스크 관리가 중요
-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FTA, 투자협정 등 양자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저하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이 바람직
- 둘째, 일본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나 증권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시장의 투자매력이 크게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
- 해외자본의 일본시장 이탈은 일본시장의 고립화, 글로벌화에 대한 적응력 약화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 高

<참고자료>

日本銀行国際局, 「2009年の国際収支(速報)動向」(2010. 3)